

시멘트 값 또 인상...지역 건설·레미콘업 반발

쌍용·성신 작년 30% 이어 내달 14%대 가격 인상 예고 내일 광주 주택건설협·레미콘협 간담회...반대 표명

다음달 예고된 국내 시멘트업계의 가격 인상을 앞두고 주 수요처인 건설·레미콘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전기요금 상승 등을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건설·레미콘업계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유연탄 값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광주에서도 이례적으로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가 손잡고 시멘트 가격 인상 반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선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와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남동부레미

콘사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오는 28일 시멘트 가격 인상 반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시멘트 사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과 반대의견 표명 등이 안건으로 예정됐다. 주된 목적은 가격 인상 반대를 위한 공동 목소리를 내는 데 있다.

공사 자체 공급처와 수요처로 항상 단가를 두고 대립해오던 이들 단체의 연대는 처음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위축된 건설 경기에 연이은 시멘트 가격 인상이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앞서 쌍용 C&E와 성신양회는 7월 1

일부터 시멘트 가격을 각각 14.1%·14.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30%를 올린 데 이어 올해 또다시 가격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 등 나머지 주요 시멘트 업체들의 인상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존 사례로 봤을 때 나머지 업체 또한 줄줄이 가격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의 가격 인상 명분은 누적인 적자 속 치솟은 전기요금과 친환경 전환에 따른 설비비용 등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전기료를 지난해 12.5% 인상한 데 이어 올 들어 1분기 9.5%, 2분기 5.3% 연이어 올렸다. 지난해부터의 누적 인상률은 40%에 달한다. 전기료는 시멘트 제조 원가의 20%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시멘트사들은 시멘트 원

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값이 지난해 높은 수준을 보인 데 따른 적자 누적과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설비투자금 증가 등으로 녹록치 않은 경영 여건 또한 인상의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건설·레미콘업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멘트업계 상황을 일부 감안한다 해도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유연탄 값의 경우 최근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주로 수입하는 호주 뉴캐슬탄(6천kcal 기준)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톤당 약 345달러에서 최고 400달러에 육박했으나, 올 들어 150~160달러선까지 내려왔다. 20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 또한 시멘트 가격 인상이 공사비 갈등, 분양가 상승, 공사 지연 등 시민과 건설업계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제동을 걸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쌍용 C&E 등 7개 시멘트 생산업체와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석한 '시멘트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주 실장은 "업계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연탄과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의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항후 원만한 가격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공사 자체 단가를 놓고 대립하던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가 이렇게 공동 대응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며 "건설 경기 부진에 관련 업체들이 낭떠러지에 떠밀려지고 있는 상황 속 시멘트 사의 고통 분담 차원의 배려가 절실하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투데이 경제

광주産 영화 '어디로 가고...' 내달 전야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6일 "지난해 진흥원 영화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됐던 독립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포스터가 개봉을 앞두고 오는 7월4일 오후 7시30분 광주극장에서 전야제를 연다"고 밝혔다.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광주와 풀란드 바르샤바를 배경으로,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명지'와 사고로 동생을 잃은 '지은', 단짝 친구와 이별한 '해수'가 서로의 상실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위로의 과정을 담고 있다.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희정 감독과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실제 거주 공간인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영화를 제작하며 지역 영화의 가능성을 펼쳤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진흥원에서 제작지원을 했던 독립영화가 우수한 작품성으로 성과를 보이는 데 다른 지역 영화에도 많은 귀감이 될 것이다"며 "광주의 모습과 배경을 통해 이뤄진 스토리가 전국에 개봉됨을 통해 지역 영화의 가능성을 고취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는 오는 7월5일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된다. /양시원기자



한국 노인 4명 중 1명은 가난 상대적 빈곤율 'OECD 1위'

66세 이상인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직접 생활비를 마련했으며, 그 비중은 늘었다.

통계청이 26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다.

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호주(2018년 기준·23.7%), 미국(23.0%), 일본(2018년 기준·20.0%)은 20%대에 불과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이다.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의미다.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늘었다.

2021년 기준 66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65.0%로 10년 전과 비교해 13.4%포인트(p) 높아졌다.

정부·사회단체 지원도 17.2%로 8.1%p 높아졌다. 반면 자녀·친척지원은 17.8%로 2.4%p 낮아졌다.

전기(65~74세)와 후기(75세 이상)로 나뉘보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전기 고령자(78.7%)가 후기 고령자(46.0%)보다 훨씬 높았다.

후기 고령자는 가족·자녀 지원(29.4%), 정부·사회단체 지원(24.6%)으로 생활하는 비중이 전기 고령자보다 높았다. 경제적 의존도가 전기고령자에 비해 높은 것이다. /연합뉴스



새콤달콤 살구·자두 첫 출하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이 올해 처음 출하한 새콤달콤한 '살구와 자두'를 26일부터 선보였다. 사진은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살구와 자두를 선보이는 모습. <농협유통 제공>

광주경총 "미래 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로 지정해야"

광주경영자총협회(이하 광주경총)는 26일 미래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의 광주 지정을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하남·소촌·평동·첨단 등 광주 전역에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고,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기업들

또한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광주의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가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차 소부장 연구개발(

R&D) 기반 구축,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세액 공제, 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된다면 빛그린산단과 신규 국가산단에는 국제적 전거지, 미래차 생산단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전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

세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1kWh 줄이기 성공!

- 1. 에어컨 설정온도 1℃ 높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 유지하기
- 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3.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롯데아울렛 남약점, 호국보훈의 달 나눔 활동

롯데아울렛 남약점은 최근 전남서부보훈지청에 방문, 목포·무안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보훈 가정 20여가구를 대상으로 여름 이불패드를 전달하는 사랑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됐다.

김광희 롯데아울렛 남약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보훈가정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롯데아울렛 남약점은 지역상생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남도의 산해진미가 가득한 **강진오일장터**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강진군** 문의 : 062)650-2099

